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⑰

且如法集別行錄云 始自發心
차여법집별행록운 시자발심
乃至成佛 唯寂唯知 不變不斷
내지성불 유적유지 불변부단
但隨地位 名義稍殊 謂約了悟時
단수지위 명의초수 위약료오시
名爲理智 約發心修時 名爲止觀
명위이지 약발심수시 명위지관
約任運成行 名爲定慧 約煩惱都盡
약임운성시 명위정혜 약번뇌도진
功行圓滿成佛之時 名爲菩提涅槃
공행원만성불지시 명위보리열반
當知始自發心 乃至畢竟 唯寂唯知
당지시자발심 내지필경 유적유지
據此錄之旨則雖今時凡夫
거차록지지즉수금시범부
能廻光返照 善知方便 均調香散
능회광반조 선지방편 균조혼산
惺惺寂寂之心 該因徹果 不變不斷
성성적적지심 해인철과 불변부단

익었는가, 밝은가 어두운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若圓照自心 眞常性德 動靜雙融
약원조자심 진상성덕 동정쌍융
證會法界則便知諸地功德 塵數法門
증회법계즉편지제지공덕 진수법문
九世十世 不離於當念 以心
구세십세 불리어당념 이심
性靈妙自在 含容萬種法
성영묘자재 함용만종성
萬法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만법미상이자성 여전여부전
性相體用 隨緣不變 同時無碍
성상체용 수연불변 동시무애
성상체용 수연불변 동시무애
初無今古凡
초무금고범
聖善惡取捨之心 而不妨功用漸增
성선악취사지심 이불방공용점증
성선악취사지심 이불방공용점증
歷諸地位 悲智漸圓 成就衆生

변함없는 성품 법계 증득해 알면

삼세가 한생각서 떠나지 않는다

但生熟明昧 隨功異耳
단생숙명매 수공이이

또 〈법집별행록〉에는 '처음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요하고 아는 것[知], 그것은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단지 그 지위를 따라 이름이 다소 다르다. 만약 밝게 깨달았을 때는 이(理:고요함)와 지(智:아는 것)라 하고, 발심해서 수행할 때는 지(止:반연을 쉬어 고요함에 합하는 것)와 관(觀:마음을 보아 앎에 합하는 것)이라 하고, 제대로 연마하여 행을 이룰 때에는 정(定:선정, 즉 고요함에 듦)과 혜(慧:선정에 의해 분별없는 앎이 생김)라 하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을 쌓는 수행이 원만하여 성불할 때에는 보리(菩提:깨달음, 즉 안다는 것)와 열반(涅槃:번뇌의 사라짐, 즉 고요함을 말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발심해서 최후까지 오직 고요하고 안다' 하였다. 이 〈별행록〉의 뜻에 의하면 지금은 비록 범부일지라도 빛을 돌이켜 마음을 비춰보고, 방편을 잘 알아 혼미함과 산란함을 잘 조절하면 깨어있되 고요한 마음이 인과(因果)를 두루 포함하여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지만 단지 공부가 익었는가 덜

역제지위 비지점원 성취중생
而始終 不移一時一念一法一行也
이시종 불이일시일념일법일행야

만일 자기 마음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성품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융화됨을 비추어 법계를 증득해서 알면 모든 지위의 공덕과 한없는 법문과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음의 성품은 신령하고 자재로우며 온갖 법을 포용하고 있다. 그 온갖 법은 각자 자기 성품을 떠난 적이 없어,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 본성(本性)과 현상, 본체와 작용, 인연을 따라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동시에 서로 걸림이 없으므로 거기에는 애초부터 옛날과 지금, 범부와 성인, 선과 악,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리하여 공을 차츰 많이 쌓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거치는 동안 자비와 지혜가 점점 뚜렷해져서 중생을 구제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때도, 한 생각도, 한 법도, 한 행도 변함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서 암 스 님

봉화 무위정사 주석

"만족모르면 세상살이 칼날밟기"

아찔한 높이의 무소유 그리고 무위의 삶, 가까이서 뵌 서암 큰스님의 하루하루는 그랬다. 그렇다고 범인은 다가서지도 못할 경지에서 '할'과 '방'을 휘두르지도 않으셨다.

소백산과 태백산 사이에 솟은 선달산 자락에 자리잡은 무위정사(無爲精舍). 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곳. 그곳을 오르는 길은 새하얀 눈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저잣거리로 향한 발자국이 없었다. 하지만 곁 고운 비질로 열어 놓은 눈길은, 산으로 드는 이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 눈길에 산골은 뭐 하러 오셨어. 늙은 노인네한테 무슨 좋은 말 들을 게 있다고. 번잡한 얘기 할 것 없이 조용한 곳에 왔으니까 그냥 며칠 푹 쉬었다 가."

미처 격을 갖추어 인사도 여쭙기 전에 객을 맞는 큰스님의 첫 말씀이다. 순간,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은 따스함으로 채워진다. 이미 주객의 경계는 흔적조차 없다. 그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수 여든 여덟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꼿꼿하셨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뵙자니 주눅부터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괜한 오기가 발동한다. 당돌해지기로 작정을 하고 대뜸 이렇게 여쭈었다.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공부가 가장 잘 되셨던 곳은 어느 도량이었습니까?"

"난 항상 못난 중이었어. 공부가 잘 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알면 돼."

처음부터 시치미를 떼신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일. 어리광을 부리듯 다시 여쭈어 본다.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신 적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여러 번 있었지."

"그 얘기 좀 들려 주십시오."

"그까짓 얘기야 다 쓸데없는 소리지. 앞으로 우리가 무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뼈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발자취 들여다보면 뭘해."

갈수록 아득해진다. 하지만 내친 걸음. 변죽을 울리면 복판이 우는 법. 숫제 떼를 쓰듯이, 미련한 곰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래도 후학들에겐 아주 요긴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님께서는 쉽게 일러주지 않으신다.

◇무위정사에서 모든 걸 '놓고' 사시는 서암스님.

스님 머무는 무위정사 조립식 가건물 최소한의 생활용품뿐

"나는 자랑할 만한 것, 일러줄 만한 그런 게 없어. 못난 중이거든. 물론 깜냥대로는 공부에 진취가 있고, 불교를 다 안 것 같고 한 때가 있었지. 하지만 돌이켜볼수록 남들한테 큰소리칠 자신이 없어."

말씀이 이쯤 되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여쭤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솔직히, 야속함마저 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난감한 상황을 침묵에 맡기는 수밖에는.

제법 긴 침묵의 시간을 흘려 보냈다. 그러다 문득 스님께서 말씀을 이으신다. 마치 남의 얘기하시듯.

"도봉산 망월사에서 한 생각 돌이켰지. 불교의 깊이를 좀 느꼈어. 그리고 또 저 계룡산의 나한 토굴이라는 바위굴에서 애를 좀 썼지.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한 달을 보내기도 하며 삼동을 났어. 그 때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지. 이런 얘기도 다 부질없어. 평생 절에 살면서 늙어간 사람이 큰 절 작은 절 안 가본 데가 있었겠어. 지금은 우르르 떼지어 놀러들 다니는 금강산의 마하연,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는 물론이고 백두산 근처까지도 두루 돌았지. 철원의 심원사에서는 1년 이상 강사 노릇도 했고. 참 오래 전의 일이야. 광복 전의 일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워."

꿈결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 좀더 스님의 얘깃자락에 매달려 본다.

"광복 후에는 어디서 공부 하셨는지요."

"계룡산에서 내려온 다음이었어. 그때 처음으로 해인사에 총림을 열었는데 효봉 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정진을 했지. 한 100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당시 쟁쟁한 스님들은 다 있었지. 동산, 청담, 경봉, 설봉 스님을 비롯하여 다들 도인이셨지. 그러다 6 · 25가 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 말씀 끝에 기자의 속물 근성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그때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스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가까이? 이 사람아, 그건 재가에서나 하는 얘기지 스님네들끼리 가깝고 멀고가 어디 있어. 모두들 한솥밥 먹고 지내는 데다 가깝지. 다만 수행하는 힘이 장한 스님들한테는 존경이 갈 뿐이야."

이러한 스님의 면모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잠시 여기서, 무위정사에서 머물며 출가의 결심을 굳힌 한 행자에게서 귀동냥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 본다.

"큰스님 곁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시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별 네 개를 단 장군이건 금뱃지를 단 국회의원이건, 지나가던 사람이든 시골 아낙네든, 조금도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말씀 나누시고는 잠자리나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누시지요."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도 스님의 단순 소박한 삶은 몸으로 전해져 왔다. 건물이라야 공사장 같은데서 인부들이 머무는 조립식 건물이었고,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이런 삶을 일러 '무위(無爲)'라고 하던가. 그러나 그 경지는 나같은 얼치기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님은 질문에 돌아오는 스님의 말씀.

"그야말로 걸림 없는 삶이시네요."

"걸리긴 왜 안 걸려. 주리면 먹어 줘야 하고 졸리면 자야지. 목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몸뚱아리 해 달라 것도 들어 줘야지."

얼굴이 화끈해 오는 순간이었다. 온갖 것에 매달리고 이것저것 다 탐하면서 함부로 '무소유'가 어떻다는 둥 겁없이 떠들며 자신을 속여온 내 자신의 실체가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험학관이나 사함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함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드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덮게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윤림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四 柱 推 命 學 情 解 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정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영태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응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화제의 신간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태몽, 그 출생의 비밀〉〈꿈풀이 삶풀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정현옥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炸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